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Variables Influencing on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이정연 · 최영선

목포대학교 소비자아동주거학전공

Lee, Jung Yeon · Choe, Young Seon

Division of Consumer, Child and Hou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much adolescents use the internet and how much they are addicted to the internet, and to examine the relative effect of the personal and family related variables on the internet addiction.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given to 420 students of middle school in Kwangju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stepwise multi-regression analysis, Cronbach's α , and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 The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was 9.1%.
2. Parent's control, positive family emotion and self-efficacy were prov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The internet addiction increased as the score of parent's control got higher, and the scores of the positive family emotion and the self-efficacy lower.
3. Because the positive family emotion was found to be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nternet addic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at the further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facilitate the normal family functioning in relations with preventing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self-efficacy, family functioning

I. 서론

컴퓨터가 일반인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하게 된 배경은 개인용 컴퓨터의 신속한 보급과 인터넷이라는 독특한 정보소통 방식의 확산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을 비롯한 신속한 쌍방향 정보소통 매체들의 이용이 늘어났다. 컴퓨터의 활용 정도는 특히 젊은 세대에 두드러져, 다른 세대들과의 특징적인 차이를 표현하는 용어로 이들을 'n-세대'라 부를 정도가 되기도 했다(김교현, 2001).

청소년들은 충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시간, 공간,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흥미롭고 다양한 세계를 제공해주는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활동과 놀이의 장이 될 수 있다(조남근·양동규, 2001, 재인용). 여가시간에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 Yeon

Tel : 061) 450-2515 Fax : 061) 452-0038

E-mail : ljj5784@yahoo.co.kr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이외의 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용돈이 더 적다(김세영, 1999)는 연구결과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터넷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지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많은 자극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의 대표적 발달과업을 자아정체감의 획득이라고 할 때, 인터넷은 추상적 사고와 상상만으로 자아를 탐색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감 있게 다양한 역할을 시험할 수 있으며, 즉각적이고 생생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자신을 발견,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은 실감나는 화면으로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의 불완전한 인지능력을 보완해주며, 즉각적인 피드백 등을 통해 그들의 과장된 자의식을 만족시키고, 익명성으로 안정감을 부여해준다(이계원, 2001).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보화시대를 내세우던 시기에 성장하여, 유래 없이 큰 세대간 정보 격차속에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인터넷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01. 4. 25;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2001. 5. 3, 재인용).

이러한 추세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인구학적 변인이나 개인의 심리적 변인만을 채택하여 연구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정 환경의 질적·관계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청소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인 공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이정연, 2000),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므로 가족,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배제한다면 청소년기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미흡하다고 본다. 이나연(1995)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와 달리 청소년비행은 가족의 구조적 요소보다는 기능적 요소가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의 관련 변수를 규명하여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사용의 실태는 어떠한가?
- 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어떠한가?
- 3)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은 1996년 Goldberg, Young, 그리고 Greenfield 등에 의해 제시되었고, Goldberg(1996)는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질환 (Internet addiction disorder)이라는 병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병리적 인터넷 사용 (Pathological Internet us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Brown 대학에서는 인터넷 중독장애를 DSM-IV의 병리적 도박이나 약물남용 장애와 유사하게 '내성'과 '금단증상' 및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손상' 등으로 정의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터넷 중독이 알콜이나 약물에서처럼 생리적으로 중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약물이나 섹스 중독과 유사하게 의존적인 행동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옥순(2000)등은 인터넷 중독과 약물 중독의 유사점으로서 자기 통제력 결핍, 행복감 추구,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에서의 역기능 초래,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 낮은 자존감, 현실 적응력의 저하 등을 들고 있다.

온라인 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츠버그대학 김벌리 영 교수는 최근 미국 보스턴서 열린

미국심리학회 연례모임에서 “인터넷 중독은 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분노, 자기비하감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며, 그 결과로 실직, 이혼, 파산, 고립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자는 ‘중독적 인격’으로 변해 약물중독이나 알콜 중독 등에 쉽게 빠진다고 한다. 또한 영 교수는 “인터넷 중독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 중독이 일어나는 조건과 예방- 치료방법 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999. 11. 25. 조선일보).

하지만, 인터넷 중독은 현재 정신과 진단체계 내의 한 장애로서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고, 인터넷 중독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중독을 독립적인 장애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다른 질환, 즉, 충동조절장애, 강박장애,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현재 인터넷 중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장애로서 인정받으려면 이 장애가 생겨나는 원인, 병리과정, 진단기준, 치료방법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

사이버공간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순기능적인 관점과 역기능적인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순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Suler(1998)는 사이버공간이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청소년들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경험은 자아를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국적, 성격, 취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황상민·한규석, 1999)는 것이다. 즉, 부모와 가족을 벗어난 더 넓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을 사이버 상에 만들 수도 있으며, 사이버 상에 떠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최근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전국 중·고등

학교 학생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PC통신을 이용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사교적이며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생활적응력도 뛰어났다고 한다(중앙일보 1999년 12월 16일 10면).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결과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서울 지역의 초·중·고생들(N=1,105)은 8.8%만이 중독 위험군(100점 중에서 50점 이상이 해당)에 속했으며, 80점 이상의 중독군에 속하는 백분율은 0.2%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한 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다는 백분율은 11.6%인데 반해, 늘었다고 응답한 백분율은 15.2%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었다’(23.0%)와 ‘가족간의 대화가 늘었다’(29.8%)는 반응이 두드러져 인터넷이 친구관계 형성과 부모-자녀간 대화를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0년 11월 7일 36면). 그러므로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자아탐색과 성장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반면, 역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부정적 환경에의 무분별한 노출은 청소년들의 공격성, 폭력성 및 성적 충동성을 지나치게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성 폭력자들의 희생자로 만들기도 한다.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활동의 제한 및 가족 및 친구관계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고립감, 우울감 등을 유발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자 연구에서 밝혔듯이, 지나친 인터넷 몰입으로 자아정체감이 흔들리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조금이라도 참고 인내해야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추구하여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쉽게 권태감을 느끼는 성격과 충동적 성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가 최근 전북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해 늦잠 등으로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17%가 '드물지만 있다', 8%가 '가끔 그

렇다', 3%가 '자주 있다', 1%가 '항상 그렇다'고 대답해, 응답자의 29%가 인터넷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01년 5월 11일). 또 컴퓨터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게임에 나오는 잔인한 방법으로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은 10대 아이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국민일보, 2001년, 3월 7일).

최근 인터넷중독에 대한 실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치료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으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겨 상담하는 경우가 1주일에 2-3명 정도"라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01년 3월 6일). 이처럼 10대들은 이미 기성세대와 달리 컴퓨터가 친구 이상으로 가까운 대화상대가 됐고, 부모 눈을 피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세계에의 몰입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거나, 상호공감대가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2000년 11월 서울YWCA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서울 시내 중·고생 1000명중 30%가 '사이버중독에 빠진 것 같다'고 응답했고, 2001년 10월 게임지원센터가 전국 10~25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10.6%가 금단현상, 조절능력 상실, 강박적 의존 등 병리학적 중독현상을 보였고 학교별로 볼 때 중학생의 13.3%가 중독증상을 나타내 고교나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이 개인의 심리상태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윤재희(1999)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이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사용정도를 Young의 인터넷 중독행동 검사 2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후 그 정도에 따라, 인터넷 몰입자, 비몰입자, 그리고 인터넷 비사용자로 구분하고,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감각추구성향이나 대인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인터넷 몰입자들이 비몰입자들에 비해서 우울 성향이 더 높고, 행동과 계획

성 면에서 더 충동적임을 발견하였다. 활동영역별로는 대화실 사용자가 전자우편이나 자료실 사용자보다 인지충동성과 운동충동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통제감과 현실과 인터넷상에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송원영(1998)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실생활에서 대인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경향은 낮으며, 현실생활에서 개인적 자기효능감과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계원(2000)의 연구에서도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중독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어서, 인터넷중독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비중독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가상공간에서의 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소영과 권정혜(2000)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자 고등학생 7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충동성이 높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낮고, 남을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상황만을 중요시하거나, 산만한 정보소통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정혜(2000)는 19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을 예언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높은 감각추구성향'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지적 대처방식의 부족' 및 '자존감을 고양하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종범(2000)은 인터넷 중독집단일수록 우울,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공격성과 자존감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정은(2001)은 중·고등학생 55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고 인터넷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시 표현의 명확성이 낮고 자기노출이 적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심하다고 보고하였다.

이계원(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양육태도로 보여지는 '애정', '합리적 설명' 보다 부정적 양육태도로 보여지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등의 요인이 인터넷중독과 더 많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도 부모가 통제할수록,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더 많이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 비행과 가족의 기능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김윤희, 1989) 비행 청소년의 부모는 모범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부모로서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었고, 비행 청소년의 가족에게서는 부모-자녀간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가족의 적응능력 저하, 기타 가족원간의 갈등 및 부모-자녀간의 세대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자녀의 비행에는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와 가족의 적응력, 결속력의 악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통제정도가 낮은 가정일수록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의 정신 건강과 가족 기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주연, 1997)에서는 높은 수준의 가족 적응력과 응집력이 아동의 정서적, 정신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이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 하는 문제는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은 물론 전체 사회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인터넷 중독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중독을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조사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가족기능이 인터넷중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가족변인으로서 가족기능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인터넷 사용과 심리적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와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심리적 변인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으로 성과 자기효능감, 가족관계변인으로서 부모의 지지, 부모의 통제, 그리고 가족기능 등을 채택하여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두 곳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적 표집을 하였다.

질문지는 420부를 배포하여 총 417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부실기재 25부를 제외한 392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Harter(1982)의 자기효능감(perceived competence)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아존중감, 친구 사귀는 능력, 행동적절성, 인지적 학습능력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alpha=.79$ 이었다.

2) 부모의 지지 척도

부모관계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개 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총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인 지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alpha=.82$ 이었다.

3) 부모의 통제 지표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6개 문항으로 '예' 또는 '아니오'의 형태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는데, 총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통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4) 인터넷 중독 지표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서 Young의 온라인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검사 문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어보아도 적절해 보이는 8문항을 선택하여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그런 적이 있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의 형태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총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가족기능 척도

가족기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 회진(1998)의 척도 2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7점 평정 척도를 5점 척도로 중학생들이 용이하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긍정적인 가족정서" 요인이 .82, "가족의사소통" 요인이 .80, "가족행사참여" 요인이 .76, "가족함께하기" 요인이 .69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5가 나왔다.

3. 자료분석방법

개인특성변인인 자기효능감과 가족관계변인인 부모의 통제, 부모의 지지, 가족기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단순상관관계, 그리고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학생이 56.4%, 여학생이 43.6%였고 부의 교육수준은 42.7%가 고등학교 졸업, 46.6%

가 대학교 이상의 졸업으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반면, 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3.5%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6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류층이 23.3%로 많았다. 모의 직업유무는 있다가 58.2%, 없다가 41.8%이었고, 부의 직업으로는 무직이 4.6%, 단순노무직이 3.6%, 피고용기능직이 29.1%, 사무직이 40.4%, 전문직이 12.3%로 사무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사용실태

1) 인터넷 사용경험

인터넷 사용기간에 따른 응답자들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인터넷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가 21.7%,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응답자가 58.2%, 3년 이상인 응답자가 20.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 1년 미만이 47.9%, 1년 이상 3년 미만이 42%, 3년 이상이 10.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3년 이상 인터넷 사용기간이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터넷 사용시간

평일인터넷 사용시간 <표 2>를 보면 6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75.8%, 6-20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3.4%, 그리고 20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0.8%이다. 이 결과로 6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6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48.3%, 6-20시간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표 1> 인터넷 경험정도

(단위: 명, %)

6개월 이하	6개월-1년	1년-1년 6개월	1년 6개월-2년	2년-2년 6개월	2년 6개월-3년	3년 이상	전체
32(8.2)	53(13.5)	66(16.9)	60(15.4)	54(13.8)	47(12.0)	78(20.0)	390(100)

<표 2> 평일(월~금) 인터넷 사용시간

(단위: 명, %)

1시간 이하	1~4시간	4~6시간	6~9시간	9~20시간	20~40시간	40시간 이상	전체
73(18.9)	171(44.0)	50(12.9)	23(5.9)	29(7.5)	24(6.2)	18(4.6)	388(100)

<표 3> 주말(토~일) 인터넷 사용시간

(단위: 명, %)

1시간 이하	1~4시간	4~6시간	6~9시간	9~20시간	20~40시간	40시간이상	전체
41(10.6)	121(31.3)	82(21.2)	74(19.1)	49(12.6)	13(3.3)	7(1.8)	387(100)

<표 4> 인터넷 활동 형태

n=390(복수응답)

숙제/공부	게임	MP3다운로드	연예/스포츠	S/W다운로드	채팅	전자우편	쇼핑	동호회	기타
313 (79.9)	267 (68.1)	202 (51.6)	175 (44.9)	101 (25.8)	126 (32.3)	345 (88.5)	38 (9.7)	224 (57.4)	32 (8.2)

32.2%, 20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9.4%로 인터넷사용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 <표 3>을 보면 6시간 미만인 경우가 63.0%로 평일보다 줄어든 반면, 6-20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1.7%로 평일보다 2배 이상이 많고, 20시간 이상인 경우는 5.1%로 절반정도가 적다.

3) 인터넷 활동유형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4>에 의하면, 88.5%가 전자우편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숙제나 공부를 위한 검색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9%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게임이 68.1%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대답한 MP3다운과 동호회 활동이다.

3. 인터넷 중독 정도

인터넷중독 지표를 구성하여 인터넷중독 경향을 진단해 본 결과, 본 대상자들은 인터넷중독 경향이 높지 않은 편으로, 5점 이하가 90.8%이고, 6점 이상이 9.1%로 나타났다(<표 5>). 이러한 비율은 청소년 보호위원회(2001)연구에서 5점 이하가 89.0%, 6점 이상이 11.0%의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중독으로 진단되는 6점 이상의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12.3%, 여학생의 경우 4.4%로 나타나, 남학생의 인터넷중독 비율이 상

<표 5> 인터넷 중독 지표

n=392, 빈도(%)

범주	성별		합계
	남학생	여학생	
0	29(13.2)	21(12.4)	51(13.0)
1	29(13.2)	51(30.0)	80(20.4)
2	48(21.8)	27(15.9)	75(19.1)
3	33(15.0)	31(18.2)	64(16.3)
4	33(15.0)	19(11.2)	52(13.3)
5	21(9.5)	12(7.1)	34(8.7)
6	15(6.8)	4(2.4)	19(4.8)
7	1(0.5)	3(0.8)	4(1.0)
8	11(5.0)	2(1.2)	13(3.3)
합계	220(100.0)	170(100.0)	392(100.0)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4. 인터넷 중독의 관련변인

1)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기능의 4개 하위요인, 즉, 긍정적 가족정서,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참여, 가족함께하기와 부모의 관계를 살펴본 부모의 지지, 부모의 통제 변인,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의 개인적 변인으로 성별과 자기효능감

등을 선정하여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모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효능감, 긍정적 가족정서, 성별 등이 인터넷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인터넷중독은 부모의 통제와는 正의 상관($r=.21, p<.001$), 부모의 지지($r=-.13, p<.01$), 자기효능감($r=-.16, p<.001$), 긍정적 가족정서($r=-.18, p<.001$), 성별($r=-.14, p<.01$)등과는 負의 상관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런데,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 변수와 긍정적 가족정서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r=.62(p<.001)$ 로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우려

<표 6>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361)

성별	-.14(**)								
자기효능감	-.16(**) -.02								
부모의지지	-.13(**) .12(**) .45(***)								
부모의통제	.21(***) -1.0(*) .02 .05								
긍정적 가족정서	-.18(***) .22(***) .41(***) .62(***) -.09(*)								
가족의사소통	-.03 .03 .35(***) .42(***) .07 .48(***)								
가족행사참여	-.08 .02 .30(***) .40(***) .00 .57(***) .41(***)								
가족함께하기	.01 .04 .11(*) .37(***) .02 .29(***) .34(***) .38(***)								
인터넷중독	1.00 -.14(**) -.16(**) -.13(**) .21(***) -.18(***) -.03 -.08 .01								
	인터넷 중독	성별	자기 효능감	부모의 지지	부모의 통제	긍정적 가족정서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 참여	가족함께하기

* p<.05, ** p<.01, *** p<.001

성별변인은 남학생=0, 여학생=1로 가변인화 하였음.

되어, 회귀분석시에는 부모의 지지 변수가 제외되었다.

2) 인터넷중독에 관한 단계별 회귀분석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2.13으로 2에 근접하고 있었으므로, 잔차간의 상관성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회귀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F=10.59, p<.001$).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독립변인 중 부모의 지지 변인을 제외한 8개 독립변인을 stepwise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부모의 통제, 긍정적 가족정서, 자기효능감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 부모의 통제가 증가할수록($\beta=.20, p<.001$), 긍정적 가족정서가 감소할수록($\beta=-.12, p<.05$),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beta=-.11, p<.05$) 인터넷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부모의 통제 변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세 변인의 설명력은 약 8.2%로 밝혀졌다. 그 반면,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참여, 가족함께하기, 성별 등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력,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부모

의 통제, 자기효능감 외에 가족기능변인이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입증되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기능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의 관련 변수를 규명하여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 중에서 중독경향이 있는 범주 6 이상에 포함된 응답자들은 9.1%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독립변인중 부모의지지 변인을 제외한 8개 독립변인을 stepwise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모의 통제, 긍정적 가족정서, 자기효능감 순으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인의 설명력은 약 8.2%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 부모의 통제가 증가할수록, 긍정적 가족정서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참여, 가족 함께하기, 성별, 모의 직업유무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표 7> 인터넷중독에 관한 단계별 회귀분석

(n=361)

독립변수	b	beta	R ²	F
부모통제	1.59	.20***		10.59***
긍정적가족정서	-.34	-.12*	.082	
자기효능감	-.43	-.11*		
상수		3.11		
D-W계수		2.13		

* p<.05 , *** p<.00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변인이 청소년기의 인터넷중독을 증가시키는 제 1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변인으로서, 자녀의 개인적 변인보다는 가족관계적 변인이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다면 애정과 통제로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자녀의 성장발달에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런데 부모의 통제가 심해질수록,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녀의 문제 행동은 증가하게 되며 인터넷중독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상 독립의 욕구가 강하므로,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통제는 그들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오히려 인터넷으로 몰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컴퓨터사용을 감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며 자녀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처벌을 하는 대신 합리적인 비판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이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로써, 정상적 기능을 한 가족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감소하고,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한다고 예측된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 연구가 처음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 요소보다는 기능적 요소가 청소년의 행동에 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회귀분석결과 나타났다. 과거에는 구조적 결손가정의 자녀가 비행에 참여하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능적 요소가 더 관련 있다는 보고들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물론 인터넷 중독이 전부 비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인터넷 중독의 결과 학업성적의 부진과 대인관계 기피 등의 변화를 보인다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서 노력할 점은 구조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각각 조사하였는데 그 중 '긍정적 가족정서'만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세 요인, 즉,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참여', '가족함께하기' 등의 영역에서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는 가족원들이 함께 하는 행동적 차원보다는 가족으로서의 소속감, 정체감, 친밀감 등을 경험하는 정서적인 차원의 유대가 더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긍정적인 가족정서가 지각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기 자녀들이 사이버세계에 더 몰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인터넷중독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유용하다고 지각하는 자녀일 수록 인터넷에 몰입하는 경향이 조절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외부의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일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주관적으로 지각한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청소년기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의 기능적 요인과 자녀의 심리적 변인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상자의 성별이나 사회계층적 요소, 모의 취업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그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양육태도나 자기효능감 외에 가족기능변수가 인터넷 중독의 중요한 예측변수로 판명된 점이다. 그러나, 본 회귀분석결과 아쉽게도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약 8.2% 정도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본 연구 대상자들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고 중독 지수상으로 볼 때 인터넷 중독이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전체사례의 약 10%정도밖에 표집되지 않아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중독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 바

람직하다.

둘째, 인터넷중독 예방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기능이 밝혀졌으므로, 가족기능을 정상화시키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인터넷중독,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참고문헌

권정혜(2000). 감각추구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270-271.

국민일보 2001년 3월 7일자.

김교현(2000).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와 컴퓨터 중독. 충남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8(1).

김세영(1999). 통신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윤희(1989). 부부관계 · 부모-자녀 의사소통 ·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김옥순(2000). 정보사회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인터넷문화: 청소년참여와 일탈.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종범(2000).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연구 -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호(1995). 보호관찰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제 17회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 연구원. pp. 85-114.

도수경(1991). 가출경험 소녀와 비가출경험 소녀간의 가족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호의 4인(2001). 국내 인터넷, 컴퓨터 등의 사이버중독 실태조사. 정보통신학술 연구 과제.

박정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 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련화(1998). 가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아시안웰스트리트저널 2001. 5. 3.

유영주(1989). 가족의 대내적 기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영주의 2인(2001). 가족관계학. 교문사.

윤재희(1999). 인터넷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계원(2000).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이문행(1993).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세용(1998).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41-71.

이소영 · 권정혜(2000). 게임의 중독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 소통,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이정연 편저(2000).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가족학의 역할 보호관찰21.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조남근 · 양동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 91-111.

중앙일보 1999년 12월 16일자. 10면.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학지사.

정수경(1998). 중학생비행에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과 가족기능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45-64.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희진(1998).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겨레신문 2001년 5월 11일자.
- 한겨레신문 2000년 11월 7일자.
- 한상철(1998). 청소년학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황상민·안규석 편(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http://www.fromdoctor.com/netaddition/netaddiction-introasp.
- Goldberg(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supportgp.html.
- Griffiths.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some comments on 'addicted use of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 Gunn, D. A. (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UK. http://147.197.152.160/netquest/ALL-VER6.html.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Joinson, Adam. (1998). Causes and implications of disinhibited behavior on the internet. *Psychology and the Internet*. pp. 43-60.
- Rauschenberger, S. H. (1995) Fantasy prones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2): 373-380.
- Simmons, R. Rosenberg. M., and Rosenberg. R. (1973). Disturbance in the Self-image at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553-568.
- Suler. J. (1996). *Why is this thing eating my life?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at the "palace"World Wide Web*. http://www.rider.edu/~suler/psycyber/psycuber.html
- Tavitian, M. L., Lubiner, J., Green, L., Grebstein, L. C., & Velicer, W. F. (1987). Dimensions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191-204.
- Young,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l.
- Young, K. S., Pistner, M., O'mara, J., & Buchanan, J. (1999). Cyber-disorders: The mental health concern for the new millennium. Paper presented at the 107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 press fo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104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Young, K. S, & Rodgers. R. C. (1998).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69th annual meeting of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ril. http://netaddiction.com/articles/personality-correlate.html.

(2002. 08. 25 접수)